제영을 통해 본 연자루의 문화적 표상

김 신 중*

차 례

1. 머리말
2. 연자루제영의 음영 주조
3. 연자루고사의 형성과 변이
4. 연자루의 문화적 표상
5.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순천 연자루의 문화적 표상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자루는 옛 순천읍성의 남문에 있었던 누정으로,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다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훼철되었고, 1976년 다시 죽도봉공원에 복건되어 오늘에 이른다. 주된 연구 대상은 연자루제영과 줄곧 그 중심 소재로 읊조려진 연자루고사이다.

본론의 논의는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먼저 제2장에서 연구 대상인 연자루제영의 전승 현황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어 제3장에서 연자루제영을 통해 연자루고사의 형성과 변이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 연자루의 문화적 표상을 규명하였다. 논의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주로 『승평지』를 통해 전해지는 연자루제영은 모두 82편 93수인데, 세월의 무상함이나 이별의 정한을 읊조린 작품이 대부분이다. 또 '태수 손억과 관기 호호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연자루고사를 중심 소재로 활용하였다. 때문에 주목되는 것이 연자루고사의 형성과 변이 과정이다. 고려후기의 장일, 조선전기의 서거정, 조선후기의 이수광이 남긴 제영이 그러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작품을 통해 연인의 만남과 이별을 근간으로 성립한 연자루고사의 두 가지 유형과 함께 성격을 밝혔다. 나아가 연자루의 이름과 위치까지도 고려하여, 만남·이별·재회·무상 등을 아우르는 남녀 간의 사랑을 연자루의 문화적 표상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연자루라는 누정을 단순히 시문의 산실이나 배경으로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그 자체를 표현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 순천, 연자루, 손억, 호호, 사랑, 문화적 표상

* 전남대학교

www.kci.go.kr

1. 머리말

연자루(燕子樓)는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죽도봉공원에 있는 누정이다. 옛 순천읍성의 남문루로, 읍성의 남쪽 옥천(玉川)에 놓인 연자교라는 같은 이름의 다리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 현재 서 있는 죽도봉공원의 산록은 원래 그것이 세워진 위치가 아니다. 형태는 연자교 위에 세워진 교상누각(橋上樓閣) 즉 교루였는데,[1] 이 형태를 이건 전까지 시종 유지하였던 것 같지는 않다. 후대로 가며 언젠가 연자교 가의 읍성 남문루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창건 시기는 고려 고종(1213-1259) 이전이다. 창건 이후 전란이나 화재 홍수 등으로 훼손되어 수차의 중건과 중수를 거쳤다. 가까이는 1930년대 일제의 시가지계획에 따라 훼철되었고, 1976년 다시 현재의 위치로 옮겨 복건되었다.[2]

그런데 연자루는 여느 누정과 달리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끈다.

첫째는 그 내력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대개의 누정이 조선 초나 중기 이후에 건립된 것과 달리 연자루는 그 창건시기가 고려시대로 소급된다. 이 연자루 외에, 광주·전남의 누정 중 그 역사가 고려시대까지 소급되는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진도의 벽파정, 나주의 쌍계정, 광주의 석서정, 송광사의 침계루, 백양사의 쌍계루가 있는 정도이다.

둘째는 관련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창건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알려주는 기록의 부재가 아쉽기는 하나, 연자루에는 현재 고려와 선초의 것을 비롯하여 많은 제영이 남아 있다. 게다가 지금부터 약 800년 전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고사도 전하고 있어, 현대의 문화감성과도 자못 통하는 바가 있다.

---

1) 『東國輿地勝覽』에서 "연자루는 옛날 성의 남쪽 옥천의 위에 있었다. 물을 가로질러 다리를 놓았는데, 이제 누는 없어지고 여기에 다리만 남아 있다[燕子樓 舊在城南玉川上 跨水爲橋 今樓廢獨橋存焉]"고 하였다. 또 박두세의 <重建燕子橋樓記>에서는 연자교루의 옛 모습을 "판목을 배열하여 다리를 만들고, 다리 위에 누각을 세웠다[排板作橋 橋上起樓]"고 하였다.

2) 연자루의 중건 및 중수 내력은 <燕子樓重修年紀>(김동수 편, 「누정관계자료」, 『호남문화연구』 제16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6, 54쪽)에 요약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광해군 11년(1619) 부사 강복성, 인조 11년(1633) 부사 이현, 숙종 22년(1696) 부사 박두세, 헌종 3년(1837) 부사 박종길, 고종 18년(1881) 부사 김윤식, 1976년 시장 박관주에 의해 중건 및 중수가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몇 번의 중건이나 중수가 더 있었음을 주변 기록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www.kci.go.kr

그래서 연자루의 고사 및 관련 제영을 통해 그 문화적 표상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연자루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자료의 정리나 소개 차원에서 진행되다가, 최근에야 김현진에 의해 제영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3] 이를 참고하여 여기서는 먼저 연자루제영의 전승 현황 및 그것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피고, 이어 그 대표적인 소재인 연자루고사의 형성과 변이 양상을 통해 연자루가 갖는 문화적 표상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2. 연자루제영의 음영 주조

연자루제영을 수록한 가장 대표적인 문헌은 『승평지(昇平誌)』이다. 승평은 순천의 옛 이름으로, 그 향토지인 『승평지』에는 순천의 문화공간이나 자연경관 또는 기타 풍물 등을 읊은 각종 제영이 집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 먼저 『승평지』에 실린 연자루제영의 개요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승평지』는 전후 네 차례에 걸쳐 편찬되었다. 제1차본이 광해군 10년(1618) 부사 이수광이 주도한 『승평지』, 제2차본이 영조 5년(1729) 부사 홍중징이 주도한 『중간승평지』, 제3차본이 고종 18년(1881) 부사 김윤식이 주도한 『순천속지』, 제4차본이 1923년 군수 김정태가 주도한 『승평속지』이다.[4] 이 네 차례의 『승평지』에 실린 순천의 각종 제영은 모두 426편 529수이다. 제1차본 『승평지』에 42편 92수가 먼저 수록된 다음, 제2차본 『중간승평지』에 15편 20수, 제3차본 『순천속지』에 27편 63수, 제4차본 『승평속지』에 342편 354수가 차례로 추가되었다.[5]

---

3) 김현진, 「순천 연자루 제영시 연구」, 『남도문화연구』 32,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7. _____, 「순천지역 누정 제영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4) 이 네 차례에 걸친 『승평지』를 모두 합편하여 1924년 순천향교에서 전4책으로 발행하였고(발행자 허영), 그것을 다시 1988년 순천대학 남도문화연구소에서 영인 발행하였다. 그런데 『승평지』 제2차본과 제3차본의 이름이 경우에 따라 『신증승평지』와 『순천속지』, 또는 『중간승평지』와 『신증승평지』로 달리 지칭되고 있어 혼란스럽다. 여기서는 순천대학 남도문화연구소 영인본 각 서문의 명칭을 따른다.

5) 『승평지』 합편 영인본의 편차를 들어 수록 위치를 설명하면, '신증승평지 하' 「제영」(52전-62전)에 제1차본, '신증승평지 하' 「신증」(62전-64후)에 제2차본, '신증승평지 하' 「제영」(90전-97전)에 제3차본, '승평속지 2권' 「제영」(35전-70전)과 '승평속지 4권' 「제영」(1전-17전)에 제4차본

수록된 작품 수에서 제1·2·3차본에 비해 제4차본에 매우 많은 양이 수록되었음을 볼 수 있다. 작자의 신분으로는 제1·2·3차본의 작자가 거의 순천부사나 전라도관찰사 등 관료 출신들인데 비해, 제4차본의 작자는 주로 순천에 연고를 둔 지역인사들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전자가 관인의식이 짙은 외지인의 작품을 주로 발췌 수록하였고, 후자는 강한 기록의식 아래 지역의 관련 작품들을 모두 망라하였음을 말해 준다. 때문에 전자에는 관아나 그 주변의 공루 및 유명 사찰 관련 제영이 많고, 후자에는 민간의 누정이나 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시기상으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대다수의 제영이 분포한다.

음영대상은 순수한 자연공간보다는 누정이나 사찰 등 순천의 문화공간이 주를 이룬다. 그것을 음영된 작품 수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환선정(78편), 연자루(76편), 송광사(34편), 선암사(20편), 임청대(17편), 오림정(12편), 망성암(11편), 경현당(9편), 양벽정(8편), 세심대(8편), 상호정(7편), 향림사(7편), 공북당(7편), 충무사(6편), 초연정(5편), 영귀정(5편), 옥계정(5편) 등 모두 80여 종으로 나타난다. 특히 관아의 누정인 환선정과 연자루, 사찰인 송광사와 선암사, 그리고 조위가 쌓은 임청대가 순천을 대표하는 음영대상으로 부각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연자루가 종래 환선정과 더불어 순천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승평지』에 실린 연자루제영은 모두 76편 86수이다. 제1차본『승평지』에 2편 3수, 제3차본『순천속지』에 6편 14수, 제4차본『승평속지』에 68편 69수가 실려 있다. 이전에 비해 특히 제4차본에 많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순천의 지역 시사인 '강남난국음사(江南蘭菊吟社)'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자루는 1914년부터 1922년까지 약 8년간 순천의 문사들이 주축이 된 강남난국음사의 음영 무대로 활용되었다. 그들은 각 군의 문사들과 연합하여 이곳에서 모임을 결성하고 시문을 강론하기도 하였다.[6] 때문에 1923년에 편찬된

의 제영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6) 燕子樓 郡南門樓 甲寅 境內文士 以江南蘭菊吟社 請願貸付承許 一新修繕 聯合各郡文士 結社于此 講論詩文 壬戌 引繼于地方靑年會(<舘舍樓閣祠宇變更>,『승평지』, 순천대학 남도문화연구소, 1988, 54쪽.)

www.kci.go.kr

제4차본 『승평속지』는 강남난국음사의 활동 성과를 다수 반영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제4차본 제영에 관인이 아닌 지역 문사들의 작품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연자루제영에는 몇 편의 작품이 더 있다. 『동문선』과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장일(1207-1276)의 <과승평군>과 조현범(1716-1790)의 악부시 <손태수>, 그리고 김현진이 개인문집에서 찾아낸 정철(1536-1593)의 <연자루차운>, 민주현(1808-1882)의 <순천연자루차판상운2절>, 이교문(1846-1882)의 <순천연자루>, 송주헌(1872-1950)의 <연자루차운>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6편 7수를 더해 연자루제영은 모두 82편 93수로 집계된다.

그러면 연자루제영은 주로 어떤 내용을 읊조렸을까? 김현진은 연자루제영의 주제를 크게 다음 넷으로 나누어 살핀 바 있다. 1) 별한의 정서 공감, 2) 인생무상의 감회 표출, 3) 전원 감상의 흥취 표출, 4) 고현 회상의 비감 토로가 그것이다.[7] 이 가운데 1)과 2)가 연자루고사와 관련된 주제이다. 연자루고사의 남녀 주인공이 이곳에서 사랑을 하다 헤어졌음을 떠올리거나, 그들이 이별한 뒤나 세상을 떠나간 뒤에 무상한 세월이 흘러갔음을 느낀 것이다. 이밖에 3)과 4)는 연자루가 원래 서 있었던 위치와 관계가 있다. 순천읍성의 남쪽 연자루 앞에 펼쳐진 넓은 경관을 조망하거나, 주변에 있는 임청대나 정충사를 보며 이와 관련된 옛 인물들(조위, 김굉필, 장윤)을 회고하였다.

누정은 대개 주변의 경관이 수려한 곳이나, 그런 경관을 조망하기 좋은 곳에 세워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에서 촉발된 흥취나 자연과의 교감을 말하는 것이 그곳을 찾는 탐방객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다. 또 때로는 해당 누정이나 주변에 얽힌 내력이나 인물을 회고하며 감상에 젖기도 한다. 연자루의 경우도 그렇다. 위의 3)과 4)가 그러한 입장에서 음영된 주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연자루제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연자루는 또한 그것이 교루였건 문루였건 간에, 순천읍성의 남문에 위치한 누정이었다. 즉 옛 순천읍성을 드나드는 관문에 위치한 누정이었다. 이렇듯 교통

7) 김현진, 「순천지역 누정 제영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2쪽.

www.kci.go.kr

의 요지에 자리하였다는 점에서, 연자루는 일반 누정과 달리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바로 이별의 누정이라는 점이다. 예로부터 성문이나 나루터와 같은 길목에서는 부득이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자주 연출되었다. 따라서 길목에 세워진 누정에는 흔히 이별의 장소라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기 마련이었다.[8] 연자루도 그중의 하나였다. 게다가 연자루에는 길목에 위치한 다른 누정들에서는 찾기 힘든,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내용으로 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건립되었는지 말해주는 창건 내력을 대신하여, 그곳에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매우 오래된 고사가 남아 있다. 위의 1)과 2)가 바로 그런 고사가 반영된 주제이다.

위의 네 가지 주제 중에서 연자루제영의 음영 주조를 이루는 것이 1)과 2)이다. 다시 말하면 별한의 정서와 인생무상의 감회가 서정의 주류를 이룬다. 연자루제영 82편의 70%가 넘는 60편 가량의 작품에 그런 서정이 드러나 있는데, 이 부류에 드는 작품들은 거의가 연자루고사에서 소재를 취해 창작되었다.

그러면 이제 장을 바꾸어 연자루고사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이되었는지 시간의 흐름을 좇아 제영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후기의 장일, 조선전기의 서거정, 조선후기의 이수광 작품이 주 대상이다.

3. 연자루고사의 형성과 변이

고사는 한마디로 지나간 일이다. 좀더 부연하자면 예부터 전해오는 유서 깊은 일이다. 그런데 어떤 고사가 문학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반복적 소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 그런 가까운 예로 진도의 벽파정을 들 수 있다. 벽파정이 서 있었던 벽파진은 얼마 전까지도 진도의 가장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한 나루터였다. 진도는 벽파진을 통해 맞은편 해남과 연결되었으며, 멀리 제주와도 연결되었다. 그래서 벽파정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관인을 비롯하여, 유배객과 탐방객 등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미쳤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별의 누정으로 인식되었고, 때로는 같은 성격을 가진 중국의 노로정(勞勞亭)에 비견되기도 하였다.(김신중, 「벽파정제영의 서정과 그 지향」, 『국학연구론총』 제17집, 택민국학연구원, 2016, 115-117쪽 참고.)

www.kci.go.kr

사람들의 일회적 관심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하나는 비유적 의미를 획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있었던 일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한 일과 결부되어 이차적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연자루고사는 이 두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며 형성되었을까?

현재 전하는 연자루에 관한 가장 오래된 작품은 고려후기 장일(張鎰; 1207-1276)의 시 <과승평군(過昇平郡)>이다. 장일에 대해서는 『고려사』 열전에서 그 행적을 찾을 수 있다. 이 작품과 관련된 사항을 간추려 보면, '고려 고종 10년(1223)에 17세로 과거에 급제하여, 15년이 지나 승평판관이 되었고, 다시 원종(1259-1274) 초에 전라도를 안찰하였다'[9]는 것이다. 그러니 30대 초반에 승평에 판관으로 왔고, 20여 년이 지나 50대에 다시 전라도에 안찰사로 왔음을 알 수 있다. <과승평군>은 장일이 승평군을 지나며 지은 작품으로, 조선 초의 『동문선』에 먼저 실리고, 이후 『동국여지승람』에도 수록되었다.

다음이 『동문선』에 실린 칠언절구 <과승평군>이다.

霜月凄涼燕子樓	서릿달 처량한 연자루
郎官一去夢悠悠	낭관 한번 떠나가니 꿈속에도 아득했네
當時座客休嫌老	당시의 좌객이여 늙음을 미워 마오
樓上佳人亦白頭[10]	누상의 가인 역시 흰머리가 되었다오

연자루, 낭관, 좌객, 가인을 소재로 하였다. 언젠가 승평의 연자루에서 낭관, 좌객, 가인이 자리를 함께 했던 좋은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훗날 누군가가 다시 이곳을 지나며 보니, 낭관이 떠나간 후에 무심한 세월이 흐르고, 기다림에 지친 가인 역시 좌객처럼 어느새 백두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한때 연자루를 무대

9) 張鎰 (中略) 高宗朝登第 還家居十五年 補昇平判官 以政最聞 (中略) 元宗初 與侍郎金祗錫迭 爲全羅忠淸慶尙三道按察. (『고려사』, 권106, 열전19, 장일;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역주, 『국역 고려사』 24, 도서출판 민족문화, 2006, 24쪽 참고.) 『동국여지승람』과 『승평지』의 '명환'조에는 "고종 때 판관을 지냈는데, 정사의 으뜸으로 알려졌다[高宗朝爲判官 以政最聞]"고만 기록되어 있다.

10) 『東文選』, 권20, 칠언절구; 『국역 동문선』 Ⅱ, 민족문화추진회, 1977, 693쪽.

www.kci.go.kr

로 펼쳐졌던 낭관과 가인의 애틋한 로맨스와 더불어 세월의 무상함을 읊조린 작품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낭관과 좌객, 그리고 가인은 누구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작품 제목에 붙은 협주에서 볼 수가 있다. 즉,

> 일찍이 이 고을의 태수 손억이 관기 호호를 좋아하였는데, 안찰사가 되어 다시 지나다 보니, 호호는 이미 늙어 있었다[曾倅此郡太守孫億 眷官妓好好 按部重過 好好已老矣]

는 것이다. 이 협주를 통해 떠나갔던 낭관이 곧 태수 '손억(孫億)'이고, 백두가 된 누상의 가인이 관기 '호호(好好)'임을 알 수 있다. 또 좌객은 낭관으로 묘사된 태수 '손억'의 또 다른 모습으로 파악된다. 손억과 호호의 생존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들 역시 장일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11] 손억과 호호의 사랑과 이별, 이것이 곧 연자루고사를 형성시킨 원천 이야기이다.

그런데 문제는 협주에 보이는 안찰사가 되어 다시 이곳을 지나간, '안부중과(按部重過)'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는 것이다. 단순히 협주의 자구만을 좇는다면, 그 주체는 바로 앞선 기술 내용의 주체인 태수 손억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 작품을 장일이 지었고, <과승평군>이라는 제목과 '안부중과'라는 기술에 공히 '과(過)'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주체는 작자이자 로맨스의 관찰자인 장일로 해석된다. 특히 당시 관료로서의 이력이 분명하지 않은 손억에 비해, 장일이 실제로 원종 초에 전라도를 안찰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안부중과'의 주체는 사실상 장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서 기술의 편의상 전자를 [해석1], 후자를 [해석2]로 지칭하기로 한다. 미리 말하자면, 이 [해석1]과 [해석2]의 상반된 입장에서 연자루고사의 [유형1]과 [유형2]가 성립되었다는 것이 앞으로 논의할 이 장의 주요 내용이다.[12]

---

11) 후대의 기록인 『승평지』에서도 장일의 시에 근거하여 손억을 고려 고종조의 인물로 기록하였다.(<先生案>, 『승평지』, 60쪽.)

12) 김현진도 「순천 연자루 제영시 연구」(243-246쪽)에서 '안부중유(按部重遊)'의 주체가 누구인지 따진 후, 손억을 그 주체로 보는 입장에서 장일의 작품을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관

‘안부중과’의 주체가 손억이라는 [해석1]의 입장을 취하면, 장일의 <과승평군>은 손억과 호호의 이별과 재회를 노래한 작품이 된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호호와 안찰사가 되어 돌아온 손억이 마침내 연자루에서 다시 만난다. 그런데 옛 모습을 잃고 이미 늙어버린 서로의 얼굴을 보며, 꿈속에서도 바랐던 재회의 기쁨보다는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또 이와 달리 ‘안부중과’의 주체가 장일이라는 [해석2]의 입장에 서면, 이 이야기에서 손억과 호호의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찰사가 되어 20여 년 만에 자신이 판관으로 있던 승평을 다시 찾은 장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손억을 기다리다 연자루에서 혼자 늙어버린 호호의 쓸쓸한 모습이다. 그래서 작자는 달을 매개로 하여, 역시 달을 보며 어디선가 홀로 늙어가고 있을 손억(좌객)을 향해 따뜻한 위로의 말을 던진다. 세월의 무상함보다는 이별의 정한이 더 부각되는 경우이다. 전자에 비해 <과승평군>의 시적 의미가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장일 이후 연자루의 음영은 15세기의 서거정(徐居正; 1420-1488)에서 볼 수 있다. 서거정은 장일의 <과승평군>을 [해석1]의 입장에서 수용하고, 연자루에 대한 감회를 <순천연자루> 2수로 나타냈다.

鵲兒嶺外一葵樹	작아령 밖에는 일오수
燕子樓前八馬碑	연자루 앞에는 팔마비
白髮孫郎人莫笑	백발의 손랑을 사람들아 웃지 마오
牧之曾賦子枝詩	두목도 일찍이 자지시를 지었다오
樓外年年燕子飛	누 밖에는 해마다 제비 날아드는데
樓中好好已成非	누 안엔 호호 모습 이미 보이지 않네
風流人物今安在	풍류롭던 인물들 지금은 어디 있나
一曲琵琶伴落暉[13]	한 곡조 비파소리 석양에 떨어지네

점을 달리하여, 그 주체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연자루고사의 형성과 변이를 촉발시켰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13) 서거정의 『四佳詩集補遺』(제3권, 시류)와 『新增東國輿地勝覽』(권40 「순천도호부」, 고적)에 손억과 호호의 고사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두 책의 편찬 시기나 수록된 내용으로 보아, 『동국여지승람』에 먼저 수록된 것을 『사가시집보유』에 다시 그대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제1수에서는 손랑이 다시 연자루를 찾은 일을 말하였다. 손랑이 호호를 찾아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그의 귀환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목이 일찍이 훗날을 약속하고 헤어진 여인을 너무 늦게 찾아온 탓에 결국 인연을 맺지 못하고, 후회하며 지었다는 이른바 '자지시(子枝詩)'를 들어 손랑의 처지를 비유하였다. 그리고 제2수에서는 세월이 흐른 뒤의 쓸쓸한 연자루 정취를 묘사하였다. 세월이 흘러 호호도 손랑도 모두 이 세상을 떠났다.[14] 하지만 '연자루'라는 이름에 걸맞게 누각 밖에는 해마다 봄이면 제비가 날아든다. 세월 앞에 무상한 인간사를 변함없는 자연현상과 대비하였다.

그런데 장일과 서거정 사이에는 약 200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그 사이에 손억과 호호의 이야기가 어떻게 회자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또 서거정이 실제로 연자루를 탐방한 적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다만 그가 장일의 <과승평군>을 수록한『동문선』편찬에 찬집관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동문선』을 편찬하며 장일의 시와 관련 이야기를 접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서거정은 이 <순천연자루> 2수 외에도 연자루를 소재로 한 작품을 몇 수 더 남겼다.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송신종사종호압강지행희봉(送申從事從濩鴨江之行戲奉)> 4수 중의 제4수이다. 종사관으로 압록강을 향하는, 자신보다 36세 연하인 신종호를 보내며 써준 시이다. 제1·2·3수에서는 용만·영명사·부벽루·조몰대·압록강 등 서북의 풍물을 거론하며, 자신도 젊은 시절 이곳을 호쾌하게 누비던 때가 있었음을 회상하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백수가 되어 북쪽을 향해 시나 읊조린다고 하며, 제4수에서

昔日重過燕子樓	지난날 연자루를 다시 지날 제
佳人雖在將白頭	가인 비록 있었으나 또한 백두였었지
如今惆悵已奔月	이젠 슬프게도 달나라로 이미 가버렸으니
無計尋芳只自愁[15]	꽃을 찾을 방도가 없어 다만 시름뿐이네

14) 제2수 승구의 '已成非'를 지금까지 모두 '이미 늙었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미 (죽어서) 없다'는 뜻으로 옮겨야 전체의 문맥과 어울린다.

15) 서거정,『사가시집』, 제50권, 시류.

www.kci.go.kr

라 하였다. 앞의 제1·2·3수에서 활달한 기상을 앞세우며 서북의 풍물을 노래하다가, 제4수에서 돌연 서북과는 멀리 떨어진 남쪽 순천의 연자루를 호명하였다. 백발이 되어서야 연자루를 찾은 손억을 통해 자신의 늙음을 하소연하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백두의 호호마저 이제는 죽어 달나라로 가버렸다고 하여, 앞의 <순천연자루> 제2수의 쓸쓸한 의경을 다시 드러내었다. 기구의 '석일중과(昔日重過)'에서는 장일의 <과승평군> 협주 '안부중과'를 차용하였다.

이렇듯 <송신종사종호압강지행희봉> 제4수는 순천 연자루와 관련 인물을 직접 노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소재로 서거정 자신의 늙음과 무상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연자루의 옛 일이 반복적 소재로 활용되며 비유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손억과 호호의 이야기가 의미 있는 문학적 고사로 성립함을 볼 수 있다. 나아가 거의 같은 시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은 연자루고사의 존재를 공식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던 당시 연자루는 이미 무너지고 없었다. 따라서 연자루는 순천도호부의 '누정'조가 아닌, '고적'조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었다.[16]

> 연자루는 옛날 성의 남쪽 옥천의 위에 있었다. 물을 가로질러 다리를 놓았는데, 이제 누는 없어지고 여기에 다리만 남아 있다. 지금도 연자교라 칭한다. 예전에 태수 손억이 관기 호호를 좋아하였는데, 안찰사가 되어 다시 노닐다 보니, 호호는 이미 늙어 있었다. 통판 장일의 시가 있는데 이르기를 (작품 생략)이라 했고, 서거정의 시에 (작품 생략)이라 했다.[17]

연자루고사를 연자루의 유래 및 장일·서거정의 제영과 함께 수록하였다. 수록된 내용은 앞선 장일의 협주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장일의 협주가 <과승

16)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에 서거정이 총재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여기에 수록된 내용에도 그의 생각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7) 燕子樓 舊在城南玉川上 跨水爲橋 今樓廢獨橋存焉 至今稱燕子橋 **昔太守孫億 眷官妓好好 按部重遊 好好已老** 通判張鎰有詩云 (作品省略) 徐居正詩 (作品省略).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0, 순천도호부, 고적;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Ⅴ, 민족문화추진회, 1969, 70쪽.)

www.kci.go.kr

평군>이라는 자신의 작품 제목 밑에 달린 것과 달리 여기서는 장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리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안부중과'의 주체는 당연히 이야기의 주인공인 손억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안부중과(按部重過)'를 '안부중유(按部重遊)'로 바꾸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로맨스에 운치를 더했다. 이것이 [해석1]의 입장에서 형성된 연자루고사로, 이를 [유형1]이라 칭하기로 한다.

이에 반해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은 '안부중과'의 주체는 장일이고, 손억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해석2]의 입장을 취하였다. 다음이 이수광의 제영 <연자루>이다.

惆悵仙郎去不歸	아아, 선랑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一樓霜月夢依依	외로운 누 서릿달, 꿈길에도 아득했네
祇今往事空流水	이제 지난 일일랑 부질없이 흐르는 물이라
橋上東風燕子飛[18]	연자교 위 봄바람에 제비만 나는구나

한번 떠나가서 끝내 돌아오지 않은 사람. 남은 자의 쓸쓸한 기다림. 그리고 이제 물처럼 세월이 흘러 모두가 가버린 지금. 지난날 연자루가 서 있던 다리 위로 무심한 제비만 봄바람을 타고 날아든다는 것이다.

이수광은 17세기 초에 순천부사(1616.10.-1619.3.)를 지낸 인물로, 재임 기간 동안 제1차본『승평지』의 편찬을 주도하고,『지봉집』권18「승평록」에 86편의 시를 남길 정도로 순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의 연자루고사 수용은 이런 관심과 식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제영 창작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더해 연자루고사를 다시 정리하였다. 그것이『지봉유설』에 나오는 다음 시화이다. 장일의 <제승평연자루시>가 바로 <과승평군>의 다른 이름이다.

장일의 <제승평연자루시>에 이르기를, (작품 생략)이라 했다. 승평은 지금의 순

18) 이수광,『芝峯集』, 권18,「昇平錄」. 작품의 주에 "누는 연자교 위에 있었는데, 누는 없어지고 다리만 남아 있다[樓在燕子橋上 樓廢橋存]"고 하였다.

www.kci.go.kr

천부이다. 장일이 일찍이 이 군의 판관이었을 때, 태수 손억이 있었는데 관기 호호를 좋아하였다. 장일이 안찰사가 되어 다시 오기에 이르러, 호호는 이미 늙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읊조렸다. 낭관은 손억을 가리킨다. 신광한 시의 "고을 수령으로 다시 오니 오히려 청안인데, 이별 후에 가인은 이미 백두가 되었네" 역시 이러한 뜻이다.[19]

손억이 호호를 좋아했던 일이 장일이 승평판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고, '안부중과'의 주체가 손억이 아닌 장일임을 명시하였다. 앞에서 모호했던 장일에 대한 기술을 분명히 하며, 『동국여지승람』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면서 '안부중과(按部重過)'를 '안부중래(按部重來)'로 바꾸었다. 서술자가 자신의 위치를 다른 곳이 아닌 순천으로 의식한 결과이다. 이수광이 순천부사의 입장에서 이 시화를 서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신광한 시의 '청안'과 '백두'는 손억과 호호가 아닌, 장일과 호호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것이 [해석2]의 입장에서 형성된 연자루고사로, 이를 [유형2]라 칭하기로 한다.

이렇듯 두 유형으로 형성된 연자루고사의 줄거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성	유형 1	유형 2
기	손억과 호호가 만나 서로 좋아함	좌동
승	손억이 떠나고 호호가 남아 기다림	좌동
전	손억이 돌아와서 재회함	손억이 아닌 장일이 돌아옴
결	서로의 모습에서 무상함을 느낌	호호의 백발에서 무상함을 느낌

연자루고사가 이 두 유형으로 형성된 것은 첫 번째 제영인 장일의 <과승평군> 협주 내용의 모호성 때문이다. 그로 인해 [유형1]이 먼저 형성되었고, [유형2]가 변이형으로 파생되었다.

구성을 보면, [유형1]은 전형적인 애정설화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만남-이별-재회'의 줄거리가 그렇다. 따라서 [유형1]의 형성은 비슷한 줄거리를 가진 애

19) 張鎰題昇平燕子樓詩曰 (作品省略) 昇平今順天府也 **張曾判此郡時 有太守孫億 眷官妓好好 及張按部重來 好好已老** 故云 郎官指孫億也 申光漢詩 重來邑宰還靑眼 別後佳人已白頭 亦此意. (이수광, 『芝峯類說』, 권13, 문장부6, 「東詩」.)

www.kci.go.kr

정설화의 강한 흡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주제는 감격적인 연인의 재회보다는 세월의 무상함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에 비해 [유형2]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보다 충실하려는 태도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 원종 때 안찰사를 지낸 이력이 확인되는 장일을 '중래자(重來者)'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증적 성향을 가진 이수광의 학문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헤어진 연인의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이별의 정한이 주제로 부각된다. 재회의 부재로 인한 극적 요소의 감소로, [유형1]에 비해 제영에 미친 설화적 영향력은 덜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그리워도 만나지 못 한다는 비극적 요소가 가미되어 현대의 문화감성과는 더 가까워진 일면이 있다.

그런데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던 연자루고사는 『승평지』에서 철저하게 외면되었다. 『승평지』가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하는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 비추어[20] 이례적인 일이다. 『승평지』 '누정'조의 '연자루'항에는 고사와 관련된 언급은 없이, 그것의 위치·형태·건폐 이력과 함께 제영으로는 노숙동(盧叔仝)의 시구만이 수록되어 있다.[21] "팔마비에 세월 깊어 거친 풀 무성하고, 연자교에 물결 일어 지는 꽃잎 떠가네[馬碣歲深荒蘇合 燕橋波漲落花流]"가 그것이다. 보다시피 노숙동의 제영은 연자루고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원래 『동국여지승람』의 '제영'조에 '연자루'항과는 별도로 실려 있었다. 또 『동국여지승람』의 '고적'조 '연자루'항에 있던 장일과 서거정의 작품 중, 서거정의 것은 『승평지』의 '제영'으로 자리를 옮겼고, 장일의 것은 아예 『승평지』에 실리지 않았다. 이것이 [유형2]의 등장에 따른 사실 논란의 결과인지, 아니면 애정설화 자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느 편이든, 공적 영역인 지역사 편찬 과정에 작용된, 점차 강고해진 조선의 유교적 경건주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수광은 『승평지』에 누락된 장일의 제영을 사적 영역인 『지봉유설』에 수록하며, 자신의 관점에서 연자루고사를 [유형2]로 수용하였다. 이후 제

20) 이욱, 「임란 이후 순천지역 사족의 변화와 『승평지』 편찬」, 『대구사학』 제124집, 대구사학회, 2016, 10쪽.

21) 『승평지』, 4쪽.

www.kci.go.kr

영을 통한 연자루고사의 음영은 이 두 유형을 넘나들며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4. 연자루의 문화적 표상

사실 손억과 호호의 로맨스는 매우 단순한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로,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음영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은 그것이 연자루라는 특별한 공간과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연자루'라는 이름에 유의하여 그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자(燕子)'는 '제비'이다. 그러니 연자루는 이름 그대로 '제비의 집'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제비는 무엇인가? 제비는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철새로서, 계절이 바뀌면 떠나가야 하는 숙명을 지닌 존재이다. 마치 왔다가는 가버리고, 혹은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임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흔히 제비는 바람둥이에 비유된다. 그것이 반짝이는 날개와 함께 매끄러운 자태를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 제비를 뜻하는 '연(燕)'이라는 글자는 사랑을 뜻하는 '연(戀)'이나 '연(憐)'을 환기시키기도 한다.[22] 그러니 연자루는 다시 '사랑의 집'이라는 뜻을 갖는다.

<제비처럼>이라는 다음 대중가요의 노랫말은 제비의 그런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

>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 노래하는 제비처럼
> 언덕에 올라보면 지저귀는 즐거운 노랫소리
> 꽃이 피는 봄을 알리네
> 그러나 당신은 소식이 없고
> 오늘도 언덕에 혼자 서있네

22) 마찬가지로 '호호(好好)'라는 이름은 '호호백발(皓皓白髮)'을 연상시킨다. 이런 유사한 음성상징이 연자루고사에 흥미를 더해주는 요소이다.

www.kci.go.kr

푸르른 하늘 보면 당신이 생각나서
한 마리 제비처럼 마음만 날아가네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나
다시 오지 않는 님이여

여기서 노랫말의 화자를 호호로 바꾸어 보면,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호호를 화자로 상정하여 만들어진 노랫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오지 않는 임, 애타게 기다리는 화자, 그리고 무심히 나는 제비, 앞에서 본 이수광의 제영과 소재까지 일치한다. 연자루고사 [유형2]가 현대의 문화감성과 잘 부합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당초 연자루라는 이름이 어떤 연유에서 붙여졌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니 그것이 제비의 이런 상징을 의식하여 붙여졌는지 여부는 이 글 관심 밖의 일이다. 다만 하나 덧붙일 것은, 같은 이름과 성격을 가진 누정이 중국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당나라 정원(貞元; 785-805) 연간에 서주자사(徐州刺史) 장음(張愔)이 애첩 관반반(關盼盼)을 위해 서주 교외에 세웠다는 연자루가 그것이다. 관반반은 그곳에서 장음이 죽은 후에도 10여 년을 수절하며 살다가 생을 마쳤다. 그래서 연자루는 '애첩의 집'이라는 뜻도 갖는다. 지금의 표현으로 옮기면 '연인의 집'이 될 것이다. 순천 연자루에 제영을 남긴 문인들 역시 서주의 연자루를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순천 연자루의 제영에는 서주의 연자루가 곧잘 등장한다.

溝水東西碧玉流	성벽 따라 동서로 벽옥수가 흐르고
七分明月古徐州	칠 분 달이 밝은 옛 서주인데
酒醒今夜知何處	술 깬 오늘밤 어디인가 알아보니
腸斷城南燕子樓[23]	애간장 끊어지는 성 남쪽 연자루라네

순조 초에 수년 동안(1801-1805) 순천에 유배되었던[24] 송경진사 한재렴(韓在濂; 1775-1818)의 <십영(十詠)> 중 제1수이다. 순천 연자루를 서주 연자루에 빗

23) 『승평지』, 45-46쪽.
24) 이현일, 「심원자 한재렴 시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학회, 2014, 251-253쪽.

www.kci.go.kr

대어 읊조렸다. 연자루를 애간장이 끊어지는 곳이라 한 것은 관반반과 호호의 고사를 앞세워 유배객인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 중의적 표현이다. 아직 보름달은 아니지만 밝은 달이 뜬 밤, 술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이 성의 남쪽 연자루에 있더라는 것이다.

여기서 연자루가 순천읍성의 남쪽 길목에 위치하여 '이별의 장소'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앞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연자루는 붙여진 이름과 서있던 위치로 인해, 처음부터 이미 사랑과 이별이라는 강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일찍이 형성된 사랑, 이별, 재회, 무상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연자루고사는 그런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였다. 결국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연자루의 표상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아래 만남, 이별, 재회, 무상 등의 서브 디렉토리가 존재한다.

예로부터 순천은 흔히 '소강남'이라 불려졌다. 산수가 기이하고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별칭이다. 18세기의 향토문인 조현범(趙顯範; 1716-1790)은 순천의 역사와 문화를 노래한 악부시『강남악부(江南樂府)』153편의 첫 번째인 <강남롱(江南弄)> 서두에서, 순천의 자랑거리로 환선정과 연자루를 다음과 같이 맨 먼저 호명하였다. 제4·5행에 묘사된, 신선과 제비의 소리 들리는 그림 같은 누각이 바로 환선정과 연자루이다.

湖海形勝	호해의 형승
一大都護	순천 대도호부
自古佳麗江南	예로부터 아름다운 강남
粉樓畵閣	그림 같은 누각에는
仙語燕喃[25]	신선의 말과 제비의 노래

25)『국역 강남악부』,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991, 237쪽. 조현범은 또『강남악부』의 여덟 번째 <孫太守>에서 연자루고사를 [유형1]로 수용하였다. 그는 먼저 小序에서『동국여지승람』에 실린 고사의 내용과 장일의 시를 그대로 인용한 다음, "有妓名好好/樓上歌舞春風早/自古朱顔不再來/何處郎官被花惱/君莫嫌孫太守重來尋舊遊/一回少一回老"라 시화하였다.

이렇듯 연자루가 순천을 대표하는 명소였다면 연자루의 표상은 곧 순천의 표상이기도 할 것이다. 그동안 연자루고사의 주제처럼 무상한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하고 없어졌다. 그렇지만 연자루에는 지금도 옛 연인들의 로맨스를 담은 고사가 남아 있다. 그래서 연인들 만남의 장소라는 연자루의 이미지가 부각된다. 특히 그것이 원래 남문 밖 옥천의 연자교라는 다리 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연자루는 '사랑의 집'이자 '사랑의 가교'로 새겨진다. 소강남이라는 순천의 별칭과도 잘 어울리는 표상이다.

5. 맺음말

연자루제영의 중심 주제는 이별의 정한과 세월의 무상함이다. 보통의 누정제영이 주변의 좋은 경치나 자연과의 교감을 앞세우는 것과는 크게 다른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요인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연인들의 로맨스를 다룬 연자루고사의 존재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 제영을 통해 연자루고사의 형성과 변이 및 연자루의 문화적 표상을 살폈다. 장일, 서거정, 이수광의 제영 및 『동국여지승람』과 『지봉유설』의 기록이 주요 대상이었다.

연자루고사의 형성은 연자루의 첫 번째 제영인 장일의 <과승평군>에서 비롯된다. 특히 <과승평군>의 제목 협주 내용이 주목되는데, '안부중과(按部重過)'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연자루고사를 두 유형으로 형성시켰다. 그 주체를 손억으로 본 서거정의 제영과 장일로 본 이수광의 제영이 그것으로, 『동국여지승람』과 『지봉유설』이 그러한 태도를 직설적으로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그래서 『동국여지승람』은 고사의 주인공인 손억의 행위를 의식하여 '안부중과'를 '안부중유(按部重遊)'로 바꾸었으며, 『지봉유설』은 순천에 위치한 서술자의 시각에서 '안부중래(按部重來)'로 표현하였다. 원래의 '안부중과'가 지나가는 관찰자인 장일의 입장을 반영한 것과 대조적이다. 손억과 호호의 만남과 이별을 기본 줄거리로 한 연자루고사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헤어진 남녀 주인공의 재회 유무에 있다. 이야기의 중심 주제로는 각각 세월의 무상함과 이

www.kci.go.kr

별의 정한이 부각되는데, 이는 곧 연자루제영의 중심 주제와도 일치한다. 이밖에도 연자루의 이름이나 위치 등을 고려해 보면, 연자루의 문화적 표상은 만남·이별·재회·무상 등을 아우르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요약된다.

한국시가에는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에 따른 그리움을 절절히 노래한 일련의 작품들이 있다. 그런 노래의 주인공들이 홍장과 박신, 홍랑과 최경창, 이매창과 유희경 등이다. 호호와 손억의 연자루고사는 그것이 생성된 시기로 보아 이런 유형 이야기의 원조 격에 해당된다. 여기에 연자루고사의 의의와 함께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자루가 있는 순천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지금은 그 터전을 국가정원으로 가꾸어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전통정원인 원림의 중심에는 누정이 위치한다. 따라서 옛 순천의 대표적 문화공간이었던 연자루를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하여 콘텐츠화하는 일은 충분한 당위성을 갖는다. 이 글에서 논의한 연자루고사와 동일한 유형을 가진 이야기나 노래를 활용하여 연자루에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는 죽도봉공원에 위치한 현재의 연자루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는 순천읍성 남문루라는 원래의 위치를 고려하여 연자교와 함께 복원하거나, '순천만국가정원'의 한국정원 공간에 재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학적 측면에서 누정에 대한 연구는 대개 그것이 시문의 산실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어느 특정 누정에 출입하였던 문인들의 면면과 그들이 남긴 작품들을 정리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었다. 즉 누정문인과 누정작품 연구를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누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그곳에서 산출된 시문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당연하고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누정을 기능적으로 대하는 이런 일반적인 태도와 관점을 달리하여, 연자루제영의 성격보다는 연자루제영을 통해 연자루 자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자루를 단순히 시문의 산실이나 배경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를 시문의 표현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연자루를 여전히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인식하는 감성적 통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고려사』
『국역 강남악부』,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991, 237쪽.
『국역 고려사』 24,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역주, 도서출판 민족문화, 2006, 24쪽.
『국역 동문선』 Ⅱ, 민족문화추진회, 1977, 693쪽.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Ⅴ, 민족문화추진회, 1969, 70쪽.
『동문선』
『순천시사』(문화·예술편),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순천옛시』, 진인호·허근 역해, 순천문화원, 2000.
『승평지』(순천향교, 1924), 순천대학 남도문화연구소, 1988, 4·45-46·54·60쪽.
『신증동국여지승람』
서거정, 『사가시집』.
이수광, 『지봉유설』.
이수광, 『지봉집』.
조현범, 『강남악부』.

2. 논저

김동수 편, 「누정관계자료」, 『호남문화연구』 제16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6, 54쪽.
김신중, 「벽파정제영의 서정과 그 지향」, 『국학연구론총』 제17집, 택민국학연구원, 2016, 115-117쪽.
(UCI: G704-SER000003095.2016.17.17.004)
_____, 「전남의 누정과 그 연구 동향」, 『국학연구론총』 제8집, 택민국학연구원, 2011.
(UCI: G704-SER000003095.2011..8.006)
_____, 「조현범의 <강남악부>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6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UCI: G704-000390.2008..64.005)
김현진, 「순천 연자루 제영시 연구」, 『남도문화연구』 32,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7, 243-246쪽.
_____, 「순천지역 누정 제영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82쪽.

www.kci.go.kr

류연석, 「순천지역의 시문학 연구(상)·(하)」,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4·15, 순천대학교, 1995·1996.

이 욱, 「임란 이후 순천지역 사족의 변화와 『승평지』 편찬」, 『대구사학』 제124집, 대구사학회, 2016, 10쪽.
(UCI: G704-000893.2016.124..003)

이재원, 「지봉 한시 연구」, 『한문학논집』 19, 근역한문학회, 2001.

이현일, 「심원자 한재렴 시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학회, 2014, 251-253쪽.
(UCI: G704-000519.2014..56.007)

조원래, 「순천부사 이수광과 승평지」, 『남도문화연구』 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997.

www.kci.go.kr

| Abstract |

The Literary Representation of Yeonjaru Reflected in the Poetry Related to the Title(題詠)

Kim, Shin-chung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what the literary representation of Yeonjaru in Sunchen is. Yeonjaru is a building's name located at the southern gate of Suncheoneup castle. It was originally founded in Koryo Dynasty and removed in 1930s, under the Japanese colonization. After that it was again restored at Jukdobong park. The subject of the main study is Yeonjaru-related poetry and Yeonjaru story sung as a core material.

The discussion of the main subjec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I digested the transmission situation and important contents of the Yeonjaru-related poetry in the second chapter. Continuously, I examined the formation and variation aspects of Yeonjaru story through Yeonjaru-related poetry in the third chapter. Based on this, I found out the literary representation of Yeonjaru in the fourth chapter. The summary of these contents are as follows.

Yeonjaru-related poetry consists of 934 pieces of poems in total, which is mainly introduced by Sungpyeongji. It mostly describes the transience of times and the bitter feeling of parting. I used the Yeonjaru story as the central material, which is connected with the love story of governor Son Eok and kisaeng Ho Ho. So, to be noted is the formation and variation process. The writings of the writers, such as Jang Il in late Koryo Dynasty, Seo Keo-jeong in early Chosun Dynasty and Lee Soo-gwang in late Chosun Dynasty, shows such a process. Through the works of three writers, I found ou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Yeonjary story made on the basis of the meeting and parting between lover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name and location, I found out the love between a man and a woman, encompassing meeting, parting and reunion, as the literary representation of Yeonjaru. These discussions mean the writers considered the Yeonjaru itself as the expressional material, not such an attitude as the cradle and background of the poetry and prose.

Key words : Sunchen, Yeonjaru, Son Eok, Ho Ho, love, literary representation

투고일 : 2018년 7월 3일 **심사기간** : 7월 30일 – 8월 14일 **게재확정일** : 8월 15일

www.kci.go.kr